

일반 독자를 위한 <이상심리학> 시리즈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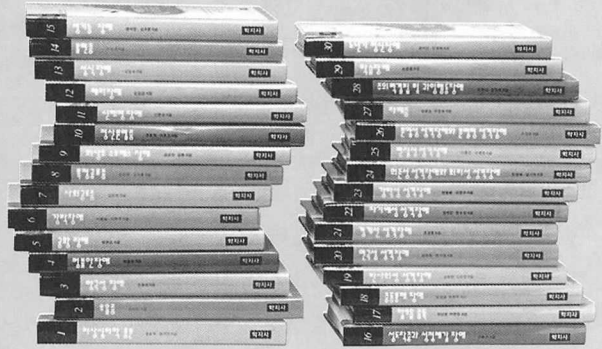
30여가지 정신장애의 증상과 원인, 치료방법 설명해

현대인의 정신장애와 이상심리를 다룬 <이상심리학> 시리즈가 학지사에서 출간됐다. 이 시리즈는 우울증·정신분열증·공황장애 등 이상심리 30여가지의 최신 연구성과를 전 30권에 걸쳐 총망라했다.

이 시리즈는 우선 제1권 《이상심리학 총론》(원호택 외)에서 이상심리학의 연구주제와 정신장애의 종류, 이상심리의 원인과 치료 방법 등을 개괄한다. 그리고 제2권 《우울증》(권석만)부터는 개별적인 정신장애의 증상과 원인, 치료방법 등을 각각 설명한다.

이 시리즈에서 다루는 정신장애는 현대인이라면 직·간접적으로 한번씩 접해봤을만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 다중성격을 뜻하는 해리 장애, 다이어트로 인한 섭식 장애, 도박이나 오락 중독 등의 증상을 보이는 충동통제 장애, 성기능 장애 등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가 풍성하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자폐증》(이용승 외),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신현균 외), 《학습장애》(송중용) 등을, 집안에 노인이 있다면 《노년기 정신장애》(이용승 외)를 읽어볼 만하다.



이 시리즈는 서울대 심리학과 임상·상담 심리학 교실에서 2년에 걸쳐 기획·집필한 결과물이다. 서울대 심리학과 원호택·권석만 교수는 발간사에서 “정신건강에 대해 좀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었지만, 전문서적이 난해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일반 독자들에게 이상심리학을 소개하고자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일반’ 독자를 위한 ‘전문서’인 만큼, 이 시리즈의 특징은 쉽게 씌어졌다는 데 있다. 시리즈 전30권의 정가는 22만원이며, 낱권 구입도 가능하다. — 김정은 기자

《만화를 보면서 배우는 영어 삼국지(전20권)》 출간돼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꾸며



이시리즈가 《만화를 보면서 배우는 영어 삼국지(전20권)》를 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를 영어 만화로 재구성했다. 한쪽은 영어를, 다른 한쪽은 한글과 영어 주석을 각각 수록해 쉽게 대조해볼 수 있도록 꾸몄다.

이 책은 싱가포르의 중·고등학교 교재로 쓰이는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를 번역한 것으로, 나관중의 원작을 바탕으로 중국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싱가포르 대학 교수들이 영어 지문을 썼다. 한국어 번역과 주석에는 ‘21세기 영어교육위원회’ 소속 영어교사 35명이 참여했

다. 현직 영어교사로 구성된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는 문법과 암기 위주의 우리 나라 영어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화를 활용한 영어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연구회측은 “학생들에게 독서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 재미있고 유익한 《삼국지》를 영어 만화책으로 제작, 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책은 중·고등학교 수준의 쉽고 평이한 영어로 씌어 있어, 영어 단어와 숙어, 기본 영어회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회는 “이 책이 완역본은 아니지만, 《삼국지》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맥락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 노력”하면서 “삼국지 지도를 수록하고, 상세한 중국 인명과 지명, 중국의 관직, 삼국지에 등장하는 고사성어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 김정은 기자